

The LEET BIBLE

2027

변호사 사례형문제 집필

오르지 않는 LEET 점수를 구원해 줄
단 하나의 교과서, 리트바이블



PRACTICE BOOK #4

특수유형 집중훈련 (3)법률규정



PRACTICE BOOK

제목	The LEET BIBLE 2027 Practice Book #4-3 특수유형 집중분석 (3)법률규정
발행일	2025년 9월 18일 초판 1쇄
Version	v2027-1.00
지은이	사례형문제
편집인	정태환
펴낸이	정태환
펴낸곳	어반컬처랩 주식회사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91 8층 A8924
홈페이지	https://leetbible.com
전화	070-4138-2100
정가	49,800원
ISBN	979-11-994933-6-0(15360)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곳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이 자료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작성된 모든 내용의 권리는 작성자에게 있으며, 작성자의 동의 없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본 자료의 일부 혹은 전체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배포하거나 2차적 저작물로 재편집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무단 복제/배포/수정은 엄금하며, 본 교재의 저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 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지 아니하다.

※ 저작권법 제136조(벌칙)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The LEET BIBLE

Practice Book 2027 서문

The LEET BIBLE이 LEET를 바라보는 방향성

출제자의 인적 자원 POOL이 비슷하고 평가하려는 능력과 방향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The LEET BIBLE은 **법학적성시험(LEET)**이 수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패러다임을 가진 시험**이라는 **전제하에 접근**합니다. 이는 두 시험이 실전에서 요구하는 태도와 학습 전략이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수험생이 수능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LEET에서는 난항을 겪습니다. 만약 두 시험의 고득점 전략이 동일했다면, LEET 준비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험생이 LEET에서 좌절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학습해야 하는지를 탐구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책의 핵심 목표입니다.

수능이 정해진 학습 범위 안에서 성실한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시험이라면, LEET는 **법조인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잠재력을 평가하는 적성 중심의 시험**입니다. 따라서 LEET가 요구하는 사고 능력을 이해하고, 이를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우수한 성적을 얻을 수 있으므로 기존의 대다수의 시험과 준비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많은 수험생이 LEET를 자신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시험이라고 간주하고 과거 성공했던 학습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경향, 즉 휴리스틱(Heuristic)에 빠집니다. LEET라는 시험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성공의 시작점이 됩니다. 단순히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성과를 얻기 어렵고, LEET가 요구하는 사고능력을 개발하는 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개념이나 원리의 이해가 아니라, “이해는 했지만 왜 적용이 어려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가?”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LEET 학습의 본질적인 과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LEET 교육 시장에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고도 명확한 훈련 방법과 방향성을 제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The LEET BIBLE은 바로 이 지점에 주목했습니다. 단순한 개념 이해나 문제 풀이 요령을 넘어서, “어떻게 사고 과정을 전환할 것인가? 이렇게 전환된 사고를 실전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 것

인가? 그리고 이러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한가?”와 같은 **실천적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The LEET BIBLE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단순한 문제 풀이 전략을 넘어, **수험생이 실제로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이를 실전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책의 취지입니다.

Practice Book 교재는 어떤 교재인가

지난 Principle (상), (하)권을 거쳐오시면서 배우신 The LEET BIBLE의 LEET 공략법은 아직 여러분 것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LEET는 철저히 실전 중심의 시험이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LEET에 대한 접근방법을 알고 있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문제풀이에 적용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고, 아는 것을 하는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반복훈련’**입니다.

The LEET BIBLE의 Practice Book은 이런 지점을 겨냥해서 만든 커리큘럼입니다. 2027학년도 버전에서 더 커리큘럼이 풍부해진 Practice Book은, 대략적으로 8년 전에서 3년 전의 기출문제, 쉽게 말씀드리면 2027학년도인 본 교재 기준 **2017학년도부터 2023학년도의 7개년의 기출문제 대부분을 유형별로 쪼개서 집중적으로 문제풀이에 적용시켜보는 교재**입니다. 이로써 Principle (상), (하) + Practice Book 6종의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2017~2023학년도의 거의 모든 기출문제를 The LEET BIBLE 방식으로 풀이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각 세부 교재별로 **특정 유형의 문제를 어떻게 공략하는지에 대한 방법과, 필수 사전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점**은 **덤**입니다.

이 과정은 철저히 ‘훈련’을 위한 과정이고, 비슷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게 됩니다. 지루할 수도 있고, 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배우셨던 내용을 기출문제에 실제로 적용시켜 보고, 그 즉시 The LEET BIBLE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는지를 확인한 뒤 **여러분의 사고과정과 비교해보시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지점을 어려워하고, 어떤 실수를 반복하는지를 찾아내 그것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LEET의 기본 실력을 다질 수 있게 됩니다.

본 Practice Book을 통해, 여러분께서 그동안 배워오셨던 LEET 접근방법을 몸에 착 달라붙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자 변호사 ‘사례형문제’

The LEET BIBLE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

The LEET BIBLE에서 LEET를 다루는 방식은 철저히 “실전 중심적”입니다. 후술하겠지만, LEET라는 시험이 수험자의 지식수준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니만큼, 본 교재는 원리서이지만, 흔히 과목 교과서에서 볼 법한 포맷과는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1 LEET Tips

LEET TIPS

The LEET BIBLE을 통해 어떻게 LEET 고득점을 달성할 수 있는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섹션으로, 본문 중간중간에서 각 파트의 핵심적인 내용을 별도로 정리해서 제시해 드리는 파트입니다. 암기 일변도의 개념 정리에 머물지 않고 LEET 시험을 구성하는 각 문제 유형별 실전 대응법 또는 문제 풀이 방법론을 제시하는 의견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습하실 때나 특정 유형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교재를 빠르게 넘기시면서 Tips 부분만 잘 살펴보세요. 문제 대응을 위한 길잡이로서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2 Review Note

Review Note

✓ 풀어볼 문제

2014학년도 추리논증 2번

The LEET BIBLE은 단순히 문제를 풀이하거나 사후적으로 해설하는 것이 아니라, 실전에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정답을 가려낼 것인지에 집중합니다. 이를 위해 본서는 Review Note라는 양식을 활용하여, 수험생 스스로 문제 접근 방식을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Review Note 양식은 홈페이지 ‘학습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본 교재에 선별된 모든 문제에는 Review Note가 첨부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실제 LEET를 준

비한 선배 수험생들이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이미 완성된 LEET 고수가 적은 해설이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서 학습했던 선배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더욱 현실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Review Note를 통해 대부분의 수험생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자신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는구나”, “이 부분이 공통적으로 어렵구나”를 넘어,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남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사고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The LEET BIBLE에서 제시하는 정석적인 방법으로 훈련하고 싶다면, 문제를 풀 때마다 직접 Review Note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Practice Book의 단계에서는 정답 그 자체보다 정답을 도출하기까지의 사고 과정과 대응 방식이 본서에서 소개하는 실전적 LEET 풀이법을 따랐는지를 되짚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신의 Review Note를 교재의 예시와 비교하며 검토하면, 한 문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실력을 체계적으로 쌓아갈 수 있습니다.

CONTENTS

CHAPTER

01 | 법률규정 문제 접근 설명서 8

1. Practice Book 집필 의도 10
2. 법률규정 문제 유형의 접근법 11
3. 법률규정 문제 학습 = LEET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 15
4.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법률규정 구조 이해 18

CHAPTER

02 | 법률규정 PSAT형 20

1. 법률규정 PSAT형 개요 22
2. 법률규정 PSAT형 기출문제 분석 및 풀이 24

CHAPTER

03 | 법률규정 기본형 94

1. 법률규정 기본형 개요 96
2. 법률규정 기본형 기출문제 분석 및 풀이 99

CHAPTER

04 | 법률규정 계산형 201

1. 법률규정 계산형 개요 203
2. 법률규정 계산형 기출문제 분석 및 풀이 205

CHAPTER

05 | 법률규정 복습을 통한 LEET 전반의 학습 277

1. LEET에서의 법률규정 문제의 특징과 의의 279

정답지 283

CHAPTER

01

법률규정 문제 접근설명서



The
LEET
BIBLE™

“

법률규정 영역은
그 특징을 이해함으로써
LEET가 요구하는 사고영역 전반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LEET 학습의
재점검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1 장

법률규정 문제 접근설명서

The LEET BIBLE

1 Practice Book #4-3 법률규정의 집필 의도

LEET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LEET적 사고의 틀"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정말 간단하게 표현해 보자면 수능 언어처럼 글 자체를 독해해서 이해하려는 접근방식이 아닌, 문제 풀이적 관점에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문제의 요구사항을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과정을 쉽게 만들기 위해 차원을 구획하고, 밑줄을 통해 정보를 줌의 방법을 터득하고, 첫독해와 재독해를 나누어 정보 습득과 정보 처리를 구분했었습니다.

Practice Book은 Principle 시리즈에서 학습한 내용에서 더 나아가 LEET에서 자주 출제되는 개별 영역에 대한 집중적인 학습을 통해, 해당 영역에서의 득점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LEET에서 법률규정 문제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 영역에 대한 별도의 대비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수험생들은 이 법률규정 문제 유형을 단순히 빠르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디 법률규정 문제는 조문의 해석과 적용, 사례의 분석 등을 통해 법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제 유형으로, LEET 전반의 학습 방향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Practice Book을 통해 법률규정 문제에 대한 집중 학습을 진행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L

CHAPTER

02

법률규정 PSAT형



The
LEET
BIBLE™

“

법률규정 문제에서는
주체와 객체를 정확히 식별하고,
이를 중심으로 조문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PSAT식 타임어택형 문제는
신속성과 정확성이 중요해
평소에 핵심 변수를
추출하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제 2 장

법률규정 PSAT형

The LEET BIBLE

법률규정 문제는 비록 그 형식과 내용이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실상 출제의 본질은 비교적 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PSAT에서 자주 출제되는 타임어택형 법률규정 문제의 경우, **그 해법의 핵심은 문제에 내재된 주요 변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포착**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법률규정 문제를 마주했을 때, 겉으로 드러난 복잡한 형식에 주눅 들기보다는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안목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규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변수로는 **주체와 객체에 따른 구획**을 들 수 있습니다. 조문의 적용 대상이 되는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법률효과가 미치는 객체가 무엇인지에 따라 문제의 쟁점과 해법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률규정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는 항상 주체와 객체를 정확히 식별하고, 이를 중심으로 조문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PSAT의 타임어택형 문제에서는 **신속성과 정확성이 무엇보다 강조**됩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의 핵심 변수를 추출해내고, 이를 조문의 요건에 대입하여 답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법률규정 문제를 접할 때마다 논의의 평면적 변수 찾기에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문제를 읽어나가면서 "주체는 누구인가", "객체는 무엇인가", "행위의 시간, 장소,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등의 질문을 습관화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본 유형의 공략법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반복되거나 유사한 문장, 구조, 단어 등을 기준으로 차원을 구획하여, 개념 간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개념 간 관계는 한 문단 내에서 또는 문단 간에 존재할 수 있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선지의 차원과 연결 지어 사고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즉, 반복되는/유사한 문장/구조/단어를 기준으로 차원을 구획하여, 개념 간 관계(한 문단에서/문단 간에서라는 두 가지 방식)를 파악하고 이를 선지의 차원과 연결/관계 짓는 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문과 선지를 분리하여 접근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문에서 도출한 개념이나 관계가 선지에 제시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상위 차원의 개념이나 A의 B와 같은 관계 표현 등을 세부적으로 따져봄으로써 지문과 선지 간의 연계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지문과 선지를 분석하여, 상위차원/A의 B/제시 여부 등으로 지문-선지 간 관계의 유무를 먼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제의 내용이 난해하여 이해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개념의 반대 차원까지 고려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개념을 정면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반대 개념을 상정하고 지문 및 선지의 내용과 관계 지어 본다면, 문제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시문의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반대 차원까지 구획하여 관계 지을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보시는 방법이 문제 접근을 훨씬 용이하게 해주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넷째, 법률규정 문제에 등장하는 일상적인 용어들을 하나의 변수 또는 개념으로 간주하고 접근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일상어의 간과"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규정 문제에 출제되는 일상어적 표현들은 그 자체로 명확한 구체적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복잡한 관계 설정 없이도 지문 및 선지에서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빈출하는 일상어의 경우 그 자체가 변수로서 개념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장은 어떻게 보면 법률규정의 학습을 위한 기초작업을 수행하는 단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규정 문제 학습을 위한 첫 발걸음을 잘 내딛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규정>

혼인무효의 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지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지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위 1 및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지, 제3자가 부부의 쌍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부부 중 일방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4.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타방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5.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일방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 ① A-B 부부가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던 중 A가 B를 상대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②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던 A-B 부부 중 A가 홀로 부산으로 이사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변경한 후 A가 B를 상대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③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던 A-B 부부 중 A가 홀로 부산으로 이사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변경하였고, 그 후 B가 A를 상대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부산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④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던 A-B 부부 중 A는 부산으로, B는 광주로 이사하여 각각 자신의 주소지를 변경하였고, 그 후 A의 모친(대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음)이 A와 B를 상대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부산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⑤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던 A-B 부부 중 A가 홀로 부산으로 이사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변경한 후 A가 사망한 상태에서 B가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번에 다루는 문제는 법률규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핵심이 되는 두 가지 사고 방식, 즉 논리의 평면적 변수 파악과 차원의 구획을 연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비록 난이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기본기를 다지는 것은 LEET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논의의 평면적 변수란 법률규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객관적인 요소들, 예를 들어 주체, 객체,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의미합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 상황을 분석하는 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규정에서 평면적 변수를 추출해 내는 능력은 문제의 쟁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나아가 법률의 적용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차원의 구획 역시 이번 문제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네, 차원의 구획은 이번 문제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쟁점 중 하나입니다. 제시된 법률규정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그 관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을 통해 문제 상황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법률규정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정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률규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규정의 적용 범위와 요건, 효과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물론, 규정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문제는 난이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수험생들이 법률규정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명확히 인식하고 기본기를 확실히 다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규정〉

혼인무효의 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지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지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위 1 및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지**, 제3자가 부부의 **쌍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 부부 중 일방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4.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 생존한 타방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5.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 부부 중 일방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생존	제1호	같은 지역
	제2호	다른 지역
	제3호	1,2도 아닌 차원
사망	제4호	일방 사망
	제5호	쌍방 사망

본 문제에서는 주체의 생존 여부와 현재 주소지의 일치 여부라는 두 가지 핵심 변수를 기준으로 법률규정의 적용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우선 주체가 생존해 있는지, 아니면 사망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규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이는 법률규정을 차원에 따라 구획하는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체의 생존과 사망이라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규정들을 분류함으로써, 문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 사고과정을 요구했습니다.

① A-B 부부가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던 중 A가 B를 상대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고 자 할 때에는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일단 두 부부가 서울에 모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차원입니다. 따라서 제1호 차원으로서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생존해 있는 차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②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던 A-B 부부 중 A가 홀로 부산으로 이사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변경한 후 A가 B를 상대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제 주소지가 서로 달라졌습니다. 제1호가 아닌 차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2호에 해당되는지를 보고, 포섭이 불가능하다면 제3호로 가면 됩니다. 제2호의 경우, 최후의 공통 주소지에 둘 중 한 명이라도 일방의 주소지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현재 B가 거주중입니다. 따라서 맞는 선지였습니다.

③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던 A-B 부부 중 A가 홀로 부산으로 이사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변경하였고, 그 후 B가 A를 상대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부산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은 3번 선지였습니다. 생존해 있는 차원이니,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현재, 주소지가 서로 같지 않으므로 제1호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제2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B가 여전히 거주하므로,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3. 위 1 및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지, 제3자가 부부의 쌍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 부부 중 일방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그런데, 제3호는 명확하게 관계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제1호와 제2호가 적용되지 않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3호에 따라 상대방의 주소지인 부산가정법원에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틀린 선지였습니다.

- ④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던 A-B 부부 중 A는 부산으로, B는 광주로 이사하여 각각 자신의 주소지를 변경하였고, 그 후 A의 모친(대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음)이 A와 B를 상대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부산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사용하였던 논리구조가 그대로 사용됩니다. 현재 같은 주소지가 아니고, 최후의 공통주소지에도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제1호, 제2호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3호 해당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제3호에 따르면, 부부 중 일방의 주소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의 모친은 A의 주소지인 부산가정법원, B의 주소지인 광주가정법원 모두 가능합니다.

- ⑤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던 A-B 부부 중 A가 홀로 부산으로 이사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변경한 후 A가 사망한 상태에서 B가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현재 부부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제4호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생존한 B의 주소지인 서울가정법원에만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맞는 선지였습니다.

Review Note

✓풀어볼 문제

2014학년도 추리논증 2번

POINT

▶ 놓친 부분, 문제의 변하지 않는 정신, 내가 깨달은 것, 선생님이 말해준 포인트

- 대응이 중요했던 문제, 단순히 맞는 것보다 빠르게 맞는 것이 중요
- A의 B를 통한 구획이 중요했던 문제 일상어를 통한 변수의 구별

WRONG

▶ 처음 풀이 사고 과정 및 어디서 잘못됐는지 깨닫기, 교정해야 하는 구체적 부분

- 쉽게 맞힐 수 있는 문제였다

CORRECT

▶ 올바른 풀이과정

- | | |
|---|---|
| ① | 제1호에 대한 대응 |
| ② | 제2호에 대한 대응 |
| ③ | 제3호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제2호의 차원인데 제3호로 이럴수도 저럴 수도 있다고 선언 |
| ④ | 제3호 차원 |
| ⑤ | 제4호 차원 |